관객수 900만 넘긴 '범죄도시2' 흥행 의미

3년 만에 1000만 눈앞…韓영화 부활 마중물

(〈기생충〉 이후)

입소문 타고 박스오피스 1위 질주
청불 떼고 15세 관람가 '신의 한 수'
해외 배경 액션·손석구 인기 한몫
OTT에 반격, 韓기대작 흥행 청신호

마동석·손석구 주연 영화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난달 18일 개봉해 20일 만인 6일 900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객을 넘어섰다. 유머 코드와 통쾌한 액션, 여기에 악역 손석구의 인기까지 더해져 흥행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늦어도 이번 주말께 '1000만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2월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극장가와 영화계의 시선도 끈다. 영화 관계자들은 뒤이어 개봉할 대작 한국영화 흥행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만 관객 초읽기' 범죄액션 영화 '범죄도시2'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영화관으로 몰려들고 있다. 뉴시스

●감염병 시대의 답답함 날린 통쾌한 주먹

'범죄도시2'는 조선족 소탕에 나섰던 강력반 형사 마동석이 베트남으로 날아가 활약하는 이야기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인도받아 오는 임무에 나선 뒤 현지에서 무자비한 악당을 쫓는 활약을 펼친다.

영화는 폭력 노출 등은 전편보다 수위가 낮지만 통쾌한 매력을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의로운 형사 캐릭터의 통쾌한 액션이 감염병 등 현실에 짓눌렸던 관객에게 대리만족의 쾌감을 안겨준다는 시각이 많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1편의 인기 요소였던 마동석 특유의 유머 코드와 시원한 액션을 그대로 살린 것은 물론 영화의 무대와 스케일을 동남아로까지 넓혀 볼거리를 더했다"고 말했다.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추앙받아온 구씨' 손석구에 대한 관객 호기심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구씨가 '나의 해방일지' 이후 베트남으로 날아가 강해상이 된 것 아니냐"는 유머가 등장할 정도다. 대체로 범죄액션물에 비우호적인 여성 관객까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일 CJ CGV에 따르면 예매 관객 가운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다.

청소년관람불가였던 1편과 달리 15세 관람가로 개봉한 것도 흥행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관객을 동원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어왔다"면서 "상업성 강한 영화의 흥행세와 그만큼 더 폭넓은 관객층이 서로 맞물린 성과로 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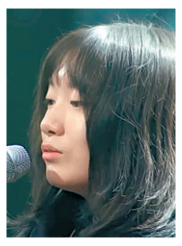
●'범죄도시2' 흥행, 곧 한국영화의 부활

이 같은 요인에 힘입은 '범죄도시2'는 1일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도미니언'의 기세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평일 평균 10∼15만여 관객을 동원하는 현재 추세에 비춰 늦어도 이번 주말께 1000만 관객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시즌 한국영화 기대작의 잇단 흥행에도 청신호를 켜고 있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는 "'범죄도시2' 덕분에 여름 성수기에 잇달아 개봉하는 한국영화 기대작의 흥행 전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관계자는 "OTT 콘텐츠에 익숙해진 관객이 감염병 확산 이후에도 극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범죄도시2'가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노태현·김푸름·정지소… '오디션 스타'를 주목하라



김푸름

한동안 아이돌 스타 발굴에만 초점을 맞춰온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소재가 다양해져 변주되면서 댄서와 싱어송라이터 등 색다른 분야의 참가자들이 새삼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의 신선함이 오디션 경쟁을 바라보는 시청자 재미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엠넷 댄스 오디션프로그램 '비 엠비셔스'(Be Mbitious)에 출연한 가수 노태현이 대표적이다. 여름 방영할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의 솔로 댄서 크루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는 초반부터 빼어난 크럼프(댄스 종목)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룹 핫샷 출신으로, 아이돌 멤버를 무시하는 댄서들을 물리치며 통쾌한 매력을 뽐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최종 20인에도 들었다.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자가 직접 평가해 마지막 경연자 8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노태현 영상은 2일 오후 현재 68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평균 10만 뷰의 다른 참가자보다 6배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채널A '청춘스타'에서는 가수 김푸름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컬·싱어송라이터·아이돌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경연하는 오디션의 싱어송라이터 부문에 지원한 김푸름은 올해 17세로 최연소 참가자다. '졸업식' 등 자작곡을 선보이면서 이승환, 강승윤 등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짙은 감성이 담겼다"는 호평을 받았다.

통기타를 치며 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부른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SNS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방법', '이미테이션' 등을 주연한 정지소도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의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 오디션에 최종 합격해 활동을 준비 중이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블라인드 오디션'에 '엠마 스톤'이란 별명으로 참가해 가수 못지않은 가창 실력을 뽐냈다.

유지혜 기자

아이유·신시아 첫 스크린 주연작 흥행 맞대결

아이유, '브로커'서 젊은 엄마 연기
칸 여우주연상 후보 1순위로 꼽기도
신시아의 '마녀2' 개봉 카운트다운
1408대 1 경쟁률 뚫고 주인공 발탁

아이유와 신시아가 첫 스크린 주연작으로 흥행 맞대결을 펼친다. 가수와 배우로 이미 입지를 쌓은 아이유와 연기 경력이 전무한, 그야말로 '생짜 신인'인 신시아가 관객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등 주연 드라마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배우로서도 명성을 얻어온 아이유는 첫 주연 영화 '브로커'를 8일 내놓는다. 지난해 '아무도 없는 곳'에 짧은 분량으로 특별출연한 그가 오롯한 주연으로 관객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톱스타 VS 신인' 아이유(왼쪽)와 신시아가 첫 주연영화를 나란히 내놓고 관객의 평가를 기다린다. 사진제공 | CJ ENM·NEW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영화 연출작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는 영화에서 그는 간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젊은 엄마를 연기한다. 기구한 과거를 뒤로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연기하며 "반항심과 모성애를 절묘하면서도 정확하게 연기했다"는 송강호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공식 상영해 외신의 찬사도 이끌어냈다. 미국 어워즈 워치는 "이번 작품의 영혼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고, 필름랜드 엠파이어는 올해 여우주연상 후보 1순위로 꼽기도 했다.

신시아는 15일 개봉하는 '마녀 파트2. 디 아더 원'(마녀2)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2018년 318만 관객을 모은 '마녀'의 속편이다. 신인 김다미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영화의 속편이라는 점에서 2편의 주인공인 신시아에 대한 기대도 쏟아지고 있다.

'마녀2'가 첫 연기 작품이기도 한 신시아는 1408: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발탁됐다. 극중 극비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비밀연구실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를 연기했다. 이름 외에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있던 그는 지난달 28일 제작보고회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출자 박훈정 감독은 "소녀라는 캐릭터에 가장 잘 맞는 배우였다"며 신시아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최현석 미술감독도 "순수한 소녀 그 자체다"고 말했다. 김영호 촬영감독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무언가 담고 있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든다"며 기대를 높였다.

이승미 기자

인기 드라마 줄줄이 웹툰으로 재탄생

'굿 닥터' 네이버웹툰서 연재 시작
'명랑소녀 성공기' 등도 개발 한창
스낵컬처 급부상, K콘텐츠 반열에

과거 인기 드라마가 잇달아 웹툰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웹툰의 드라마화는 일반적이지만, 이미 방영된 드라마를 웹툰으로 제작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경로로 가공해 내놓는, 말 그대로 '원 소스 멀티 유스'이다.

2013년 주원·문채원 주연 KBS 2TV 드라마 '굿 닥터'의 동명 웹툰이 지난달 28일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자폐성 장애와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주인공이 대학병원 소아외과 레지던트로 활약하는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를 그대로 따왔다. 웹툰의 특성에 맞게 각색, 새 에피소드도 일부 추가했다.

2014년 에릭과 정유미가 주연한 KBS 2TV '연애의 발견'과 2019년 이나영·이종석의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도 각각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으로 공개되고 있다.

KBS 2TV 드라마 '굿 닥터'의 동명 웹툰.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이미 26만여 이용자들이 봤다. 1000여 개 댓글 중에는 드라마와 웹툰을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독특하다는 반응이 많다.

2008년 SBS '아내의 유혹'과 2002년 MBC '명랑소녀 성공기'도 웹툰 플랫폼 코미코가 구매해 개발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방영한 OCN '다크홀'과 SBS '그해 우리는'은 드라마와 웹툰을 동시에 공개했다.

이는 "IP(지식재산권) 확장"의 맞아들여진다. 6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앞서 웹툰과 웹소설, 영화 등을 교차해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경계를 허물고 창작자 수익을 크게 확대해왔다"면서 "널리 사랑받은 원작을 기반으로 웹툰 독자와 원작 팬에 두루 소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해외의 '케이(K) 웹툰'에 대한 호기심도 힘을 보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클리 글로벌' 최근호는 "출판만화가 강세였던 프랑스 등 유럽에서 웹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면서 "언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로 급부상하면서 새롭게 '케이(K) 콘텐츠' 유행에 합류했다"고 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10일 컴백…2년 만에 음악 방송 출연

10일 컴백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음악 방송에 출연한다. 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7일 KBS 2TV '뮤직뱅크', 19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방송에 출연한다. 이들이 국내 음악 방송에 출연하기는 2020년 3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공개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무대에서 10일 발매하는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Proof)의 타이틀곡 '옛 투 컴'(Yet To Come)을 선보인다. '프루프'는 데뷔 후 9년간의 행적을 집대성한 음반이다.

이승기 "이다인과 변화 없다" 결별설 일축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배우 이다인과의 결별설을 일축했다. 이승기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만의 소통이 외부로 흘러나가 2차 소문으로 왜곡돼 많은 이들이 상처 받거나 가십거리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됐기에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에 말을 아꼈다"며 결별설 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열애설 이후 입장이나 신변의 변화가 없다"면서 "그 부분(결별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해 5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유재석, 이번엔 심장환자 수술비 기부

개그맨 유재석의 미담이 뒤늦게 공개됐다. 6일 한 누리꾼이 지인의 심장이식 수술비용이 유재석의 기부금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심장질환 환자가 수술 후 개인부담금 15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고, 해당 병원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금액을 대납한 독지가가 유재석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재석은 최근에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2억5000만 원,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에 5000만 원을 각각 기부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